

나주시의원들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 '논란'

의원포괄사업비 올해만 20억...시급한 지역현안 뒤로 밀려 市 견제 가능·조례 발의 뒷전에 '집행부 2중대' 전략 비난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올 들어 주민 속 원사업이라는 포장을 씌운 일명 지역구 챙기기용 '의원포괄사업비'를 20억4000만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나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남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예산 배정은 뒷전인 채 시의원들이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원포괄사업비로 집행되는 속원 사업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칫 '공사 리베이트 나눠먹기' 등에 따른 부실 공사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의원포괄 사업비로 '시의회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인 나주시의 견제기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 '시의회가 집행부 2중대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2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2015년도 예

산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사업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시의원에게 각각 7000만원씩을 배정했다. 또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의원들이 각종 민원사업으로 집행부에 제출한 사업비만 20억원에 이른다.

당시 나주시 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절반 수준인 10억4000만원을 배정했으며, 시의회 홍철식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장급이 각각 1억원씩, 평의원들에게는 각각 6000만원씩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 한 공무원은 "나주의 미래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많지만 부족한 예산이 문제"라면서 "특히 시의원들의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에 예산배정과 민원성 사업들 때문에 시급한 사업들이 뒤로 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 줄수 없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행부인 나주시가 시의원들의 지역구 현안 사업비를 챙겨주다 보니 시의회의 집행

부 견제 기능이 상실된 지 이미 오래다. 나주시의회의 의원수는 14명(행정치민 9명, 무소속 5명)으로, 집행부 견제 및 지역 현안사업 점검 등 의회 역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4명의 직원에게 연간 순수한 인건비만 1억2000만원이나 지출되는 나주시도지재생지원센터 운영 점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수두룩한데도 시의회는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떠올라 관심이 모아졌던 '빛가람 혁신도시 북측진입로 입체교차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시행 3사로부터 사업비 188억원을 이관받아 입체와 도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91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사업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또 지난 2월에는 나주시에서 혁신산단(미래산단)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향후 추가 발행은 없다는 다짐과 함께 각 서까지 받고 승인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또 60억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시의회는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계획이다.

사실상 각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당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처럼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약한' 나주시의회는 지역민을 위한 조례 발의 등도 소홀히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사무국에 따르면 13일 현재 제7대 나주시의회의 '나주시조례안 의원 발의 현황'은 총 19건으로, 장해준 의원이 '나주시 도시생태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가장 많고, 3건 2명, 2건 1명, 1건 7명순이었다. 단 한 건도 없는 의원도 3명에 이른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13.6%로, 전국 평균(37.7%)은커녕 전남 평균(14.5%)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10년뒤 나주 미래 시민 정책제안 공모

비전 슬로건 공모전과 함께 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0년 뒤인 2025년 나주의 미래 발전 전략 공모에 나선다.

나주시는 "11월 18일까지 '나주 2025 미래발전 시민정책제안과 비전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나주시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안과 미래를 이끌 비전 슬로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분야는 나주시의 정책성과 미래상을 담은 국문 슬로건과 6대 분야(균형발전, 생활환경,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교육, 자치행정)를 중심으로 역사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사업 제안이다. 다만 타인 저작물 표절이나 도용,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안 응모는 공모전을 주관하는 (주)글로벌엔코브레인파크로 전자우편(brainpark1@naver.com)이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되며, 공모결과는 나주시의 정책성과 독창성, 명료성, 적합성, 연관성,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주2025 미래발전 시민정책제안 및 비전 슬로건 공모 포스터.

선정한다. 응모 결과는 11월 말 나주시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은 1등 1명(100만원), 2등 1명(50만원), 3등 1명(30만원) 등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며, 1등이 없을 경우 시상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공모전과 관련된 서식이나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로컬푸드 빛가람점 이달말 임시개장

100평 규모 내달초 정식 개장

나주시는 "로컬푸드 사업 직매장 '빛가람점'이 이달 말 임시개장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출하농가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며, 11월 초 정식 개장한다. 개장 이후에는 100평 규모 매장에서 200여 종류의 농산물과 50여 종류의 가공식품이 연중 판매된다.

시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판매를 위해 품목별 전열 및 판매기간 준수, 농약잔류검사, 인증제 등 엄격한 품질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16일 로컬푸드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 완주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로컬푸드 업무 관련 공무원 17명과 농업인 단체 대표, 직매장 입점 예정인 사업자 등 민간인 15명이 참여해 선진 우수 사업장을 둘러봤다.

강인규 시장은 "완주에서 3~4년에 걸쳐 달성한 성과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나주시는 단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한다"면서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이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체계를 당부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강인규 시장(왼쪽)이 지난 16일 전북 완주 로컬푸드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가공식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청사서 수확한 배·감으로 사랑나눔 실천

나주시가 시청사내 배나무와 감나무에서 수확한 배와 감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청사내 유실수를 관리해 얻은 열매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특히 시청사내 배나무는 1921년 금전에서 식재한 금춘주로 나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에도 시청사내 유실수에서 배와 감 등 20박스를 수확해 사회복지시설인 목사고을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10개 시설에 기부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정성들여 가꾼 만큼 마음의 정으로 주변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청사 내 유실수에서 배와 감을 수확하고 있다.

추억에 빠져볼까... '찾아가는 영화관' 오픈

5일간 지역복지관 순회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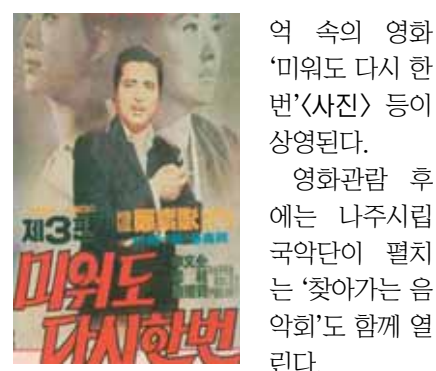
영화관이 없던 시절 마을 천막 극장의 옛 추억을 되살릴 '찾아가는 영화관'이 나주에서 5일간 문을 열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 소외 계층 해소와 문화행복 도시 건설을 위한 '2015 찾아가는 영화관'이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지역 복지관 5곳을 순회하고 있다.

영화관은 지난 20일 다도면 복지관을 시작으로 21일 나주시 노인복지관, 22일 반남면 복지관, 23일 중부노인복지관, 24일 남평읍 복지회관을 찾아가고 있다.

실버세대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찾아가는 영화관에서는 1960년대 말 구름관객을 몰고 다녔던 추



나주시는 올해부터 문화복지 실현을 위

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마을합창단 지원 사업인 '나주 마을합창제',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등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끌어올리고 문화도시 나주 위상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소방서, 운전면허시험장서 합동소방훈련

나주소방서는 지난 19일 나주 삼영동 소재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소속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상화재를 설정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인명대피, 옥내소화전 등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관계자의 초기 진화, 심 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순으로

진행됐다.

박용기 나주소방서장은 "화재는 초기 발생 5분 이내가 매우 중요하며,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은 소방차가 현장 도착 전에 소속직원들이 직접 초기진화에 사용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모든 직원이 사용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에스골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통형 상품안내 (나주지 한정)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가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 사 서 울 (수도권지역) 1566-9799 경 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 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 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 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 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